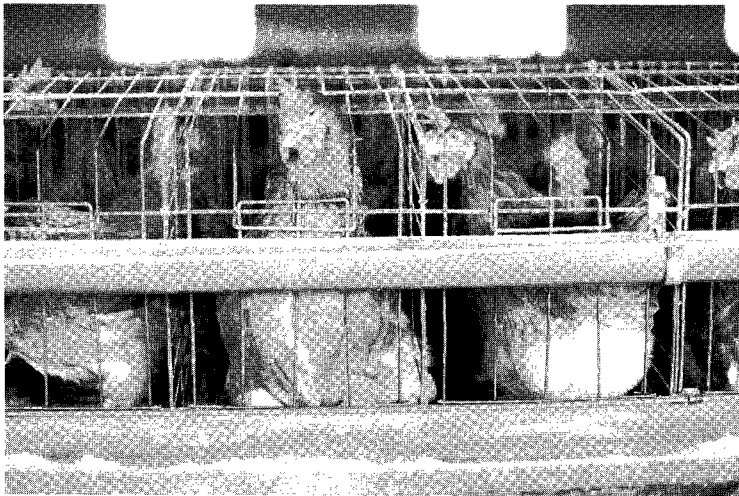


유통불균형에 따른 다운폭 심화

□ 취재/김동진 기자



1. '97년도 채란업 현황

거품경제로 치부되던 국내 경기가 지난해 보다 더욱 심화되면서 양계업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올 한해의 채란업에 있어서 11월까지 경인지역의 특란 평균가격을 살펴보면 85원으로 '96년도 보다 10원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유통의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생산자 고시가격과 농

장수취가격의 차이가 20원을 여러번 넘나들었는가 하면 이런 틈을 노려 상인의 가격조작이 생산자들을 혼돈에 빠지게 하였고 올 초부터 극성을 부리기 시작한 질병은 생산성 저하현상을 가져와 실질적인 농가 수익은 좋았다고 볼 수가 없다. 생산자들은 여전히 계란가격에만 얽매어 차후 불황이 직시됨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이 낮은 계군을 적절하게

도태시키는 현명함을 발휘하지 못하는 아쉬움도 남겼다.

이는 난가가 큰 폭으로 폭락했던 6월에는 노계물량이 일시에 출하되면서 출하물량의 과잉으로 노계가격이 100원 이하로 출하되는 경우도 있었고 7월 이후 난가가 회복되면서 노계출하를 기피해 노계가격이 900원 까지 치솟는 데도 출하가 지연되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이루어 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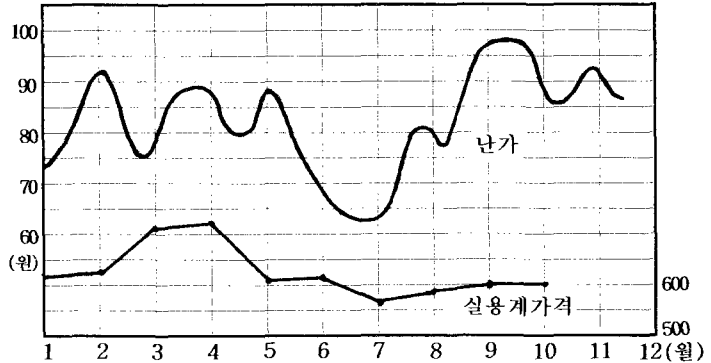
한편으로는 대규모 계사들이 정책자금을 통해 신축이 꾸준히 이루어지면서 시설개선 차원을 떠나 과잉생산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기존 양계농가들로부터 반발이 일기도 하였다. 그러나 유통의 불합리를 개선시키기 위해 수년간 자행되어온 후장기제도를 직장기제도로 바꾸자는 움직임이 일어 한동안 생산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다.

2. 예고된 불황

올해 산란실용계 생산에 영향을 미칠 지난해 산란중계입식수수는 55만수로 지난해 42만9천수 보다 28%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병아리 생산증가를 가져왔다.

실제로 올해 11월까지 병아리 가격을 보면 708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0원 정도가 낮게 형성되었지만 '95년 600원 시세보다는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지난 '95년 4/4분기에 입식된 산란중계 13만8천수(전년대비 66% 증가)가 입식되면서 계란수급 불균형을 예고했다. 즉 지난해 전반기의 산란실용계 생산수수는 1,568만수로 '95년에 비해 2.6% 상승에 그쳤으나 후반기는 1,700만수로 무려 28%가 상승하여 올 2/4분기부터 계란생산에 지대한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예견되었다. 예상했던 대로 5월들면서 난가가 수렁에 빠지기 시작하였다. 결국 6월들면서 올들어 최저시세인 65원에 고시되었는데 DC폭 13원을 적용하면 52원으로 생산비선 이하로 장기간 거래되면서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도표1〉 '97년도 난가 및 병아리 가격 추이

6월 장마와 함께 장기간 계란값이 생산비 이하의 낮은 가격에 유지되면서 다수계군이 도태내지는 강제환우를 시켰고 특히 도태일자를 상당기간 남겨둔 계군들까지 조기도태가 이루어지면서 9월까지 계란가격이 급반전되었다.

3. 직장기 제도 정착 움직임

직장기 제도는 계란유통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 생산자들이 자기가 생산한 계란이 얼마에 팔려나가는지도 모르고 채란업을 경영해 나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자들은 수년전부터 노력을 해왔으나 상인들과의 계속되는 갈등과 협조부족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4월 월례회

의에서는 후장기로 피해를 주는 약덕상인들을 색출하여 명단을 공개하지는 방법도 논의가 되었으나 단발성으로 끝나고 결국 무질서한 유통질서를 바로잡기위해 7월 1일부터 계란출하시 현장에서 계산서를 발부하고 이를 토대로 계란가격을 정산기로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의각서를 교환하고 실천에 들어갔다. 이 각서는 호응이 좋았고 본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실천에 들어가 70%의 농가에서 실시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 당시 상인들의 협조에 힘입어 고시가에서 다운폭도 10원 내외로 거래되는 등 계란유통에 한동안 활력소가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홍보부족과 직장기를 반대하는 상인들에 의해 거센 반발이 일면서 결국 2개월간

끌어오다 과거의 관습으로 다시 되돌아 갔으며 9월에는 상인들과 다시 접촉을 하여 흐트러져있는 고시시세 적용일자를 조정하고 고시시세에서 10원을 내린시세를 농장 수취가격으로 한다는 조항을 달았으며 이를 어기는 상인은 언제든 고발조치키로 결의하였으나 결국 상인들의 일방적인 임의의 FAX고시가 나돌면서 신뢰감이 땅에 떨어졌고 대화의 창이 흐려지고 말았다.

4. 유통 불균형에 따른 다운폭 심화

올해 초부터 상인들이 임의적으로 제시하는 상인고시가 공공연히 나돌면서 유통의 흐름을 어렵게 하였다. 다운폭이 거래되던 것이 달이 바뀔수록 더욱 심화되면서 4월에 15원 이상으로 일부농장에서는 20원 이상까지 벌어지면서 생산비 이하의 가격이 생산자들에게 적용되었다. 이는 생산물량이 많은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었으나 물량처리가 어려운 생산자들 특히, 일부 대형농장에서 덤핑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하여 심각성

을 더해주었다.

7월 들면서 다운폭을 좁히고 유통을 회복시키기 위해 직장기 제도 정착을 위한 노력끝에 다운폭을 10원까지 좁히는 성과를 거두고 있을 무렵 상인들의 가격조작이 표면상으로 나타나면서 유통의 흐름을 혼탁하게 만들었다.

결국 '96년 4월 상인들의 내부적인 갈등과 때를 같이해 난가조절체계를 바꾸고 혼돈속에 있는 난가의 현실화를 기하기 위해 새로 구성된 3인의 난가조절체계가 18개월만인 지난 10월 전 난가조절위원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2인체제로 다시 정비되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사의 원인은 추석 전후로 상인들에 의해 불법으로 통보되는 난가조작 FAX를 막지 못하여 유통의 혼란을 가져왔다는데 있었지만 이미 장기화된 난가의 다운폭이 20원 이상으로 벌어진데 따른 책임을 진 것으로 기인된다.

이후 상인들과 생산자들의 불신이 거세진 것은 지난 11월 초 상인들이 팩스정보통신을 이용하여 10월 농장시세를 고시가격보다 18원이 낮게 책정하여 익명으로 생산자들

에게 보내지면서 부터이다. 익명의 FAX로 인해 10월달 농장과 상인들간의 난가정산이 불합리하게 이루어졌는데 당시 DC폭은 15원 정도에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상인들이 취하고 있는 폭리는 상당량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에대해 협회에서는 대책회의를 갖고 채란분과위원장을 주축으로 이들 조작된 난가팩스에 대해 발송인을 고발하는 등 강력한 법적대응에 들어갔다.

5. 질병 만연

지난해까지 4년동안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채란농가를 위협하던 가금티푸스가 올해에도 여전히 극성을 부린 한해로 기록되었다.

또한 신종 질병이 나타나는가 하면 계절마다 피해를 주는 질병들이 항상 양계장을 떠날줄을 몰랐다.

이로인해 대부분의 농장이 크고작게 질병 피해를 경험하면서 나름대로 방역에도 힘을 기울이기도 하였지만 생산성저하를 면하지 못하였다.

특히 올초 ND의 변이형으로 추정되는 질병이 경기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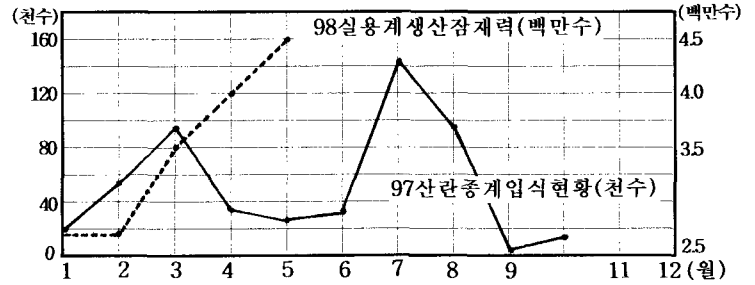
북쪽을 중심으로 성행하였는데 그 증상을 보면 앞가슴부터 털이 몸전체로 빠지면서 벼슬이 윤기가 없어지며 산란율이 30% 이상 저하된 것으로 밝혀졌다.

가금티푸스 등 질병이 계속되자 일부에서는 이 질병에 강하다는 백색계를 사육하여 백색란을 시장에 유통하는 방안도 논의가 이루어 졌지만 갈색계란과 백색계란에 대한 정확한 장단점을 연구한 자료가 부족할 뿐 아니라 있다하더라도 홍보가 부족하고 이미 굳어져버린 갈색란 유통을 뒤바꾸기에는 대안이 좀체로 나오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6. '98년도 채란업 전망

'98년도의 채란업은 생산 조절 등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큰 어려움이 닥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97년도 산란실용계 판매수수를 보면 과거보다 전반적으로 증가되어 입추가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분기별로 보면 1/4분기는 966만수로 같은기간 과거 3년 평균치보다 무려 31%가 증가되었고 2/4분



〈도표2〉. 산란계입식 현황 및 실용계 생산 잠재력

기는 885만수로 20%, 3/4분기는 935만수로 29%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과거 본회에서 조사되는 물량이 다소 적게 잡혔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10%정도의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98년도에는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견된다.

전반적으로 예년에 비해 많은 숫자가 입식된 산란계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1/4분기 172,000수, 2/4분기 92,000수로 지난해에 비해 각각 20% 증가와 49% 감소를 보인 반면 3/4분기는 232,700수로 무려 122%나 높게 나타나 이 종계들이 본격적으로 실용계 생산에 가담할 내년 4월부터 병아리 생산이 큰폭으로 늘어나 '98년도 전반적으로 많은 병아리가 생산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는 산란실용계 생산잠재

력을 보면 알 수 있는데 1,2월까지는 과거 3년평균치보다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3월에는 356만수, 4월에는 407만수로 과거 3년 평균치보다 무려 22%, 31%가 각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5,6월도 이와 비슷하게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 생산되는 병아리가 전량 수입될 경우 이 계군들이 계란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98년도 말부터는 채란업계가 전보다 더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 경고하고 있다.

또한 사료생산 실적에서 지난해와 다른 것은 산란사료 생산 실적이 전년에 비해 3%가 낮게 나타난 반면 초생추사료가 올 7월부터 증가되기 시작하여 3/4분기에는 전년 대비 13%가 증가되고 있어 차후 계란생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예견할 수 있게 해준다. 양계